KERC
Korea-EU Research Centre

KN-EU-25-5-1
Weekly EU R&I Brief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5.07

Contents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유럽연합, 미국 연구자 유치를 위한 Choose Europe 패키지 발표(5.6)
② 프랑스,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Choose France for Science 프로그램 출범(4.24)
③ 프랑스, 공동 연구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조치 촉구(5.5)
④ 독일, 5,000억 유로 예산 과학자 유치와 연구 투자에 활용할 계획(4.24)
⑤ 호라이즌 유럽, 1유로당 최대 11유로의 경제적 이득 창출(4.30)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호라이즌 유럽 2025 신규 파트너십(5.6)
② 기후변화 적응 미션, 가시적인 성과 달성(4.28)
③ OECD 분석,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중 세제 혜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4.29)
④ (SB펀딩레이더) 바이오제조 관련 주요 공고(5.6)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지역 사회 프로젝트의 도시 재생 영향
② (성공사례) AI 기반 법률 데이터베이스, 법정에 문화적 통찰력 제공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유럽연합, 미국 연구자 유치를 위한 Choose Europe 패키지 발표(5.6)

ㅇ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Choose Europe for Science' 컨퍼런스에서 과학 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

- 폰데어라이엔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유럽을 선택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유럽이 계속하여 기초 연구와 우선순위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서기 위하여 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설명

- 유럽과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과학에 대한 노력, 사회적 시장 경제를 언급하며 유럽이 과학 번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언급

ㅇ **Choose Europe 패키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유럽의 과학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유럽 전역에서 지식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 채택을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두 번째 우선순위는 재정이며, 유럽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집행위는 2025~27년 동안 5억 유로로 전 세계 우수한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ERC 산하에 7년간의 '슈퍼 그랜트'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가 정착 지원을 제공할 예정

- 또한 MSCA Choose Europe 파일럿 콜을 통해 초기 경력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이 더 높은 수당과 긴 계약 기간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

- 세 번째로는 변혁적 혁신과 비즈니스 기회에 이르는 경로를 가속화하는 것이며, 규제와 같은 장벽을 제거하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혁신법과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제시할 것
- 마지막으로, 유럽 입국 및 체류 절차를 가속화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을 유럽 내 수천 개의 일자리와 더 잘 연결하고 이들이 유럽으로 오는 것을 더 쉽고 매력적으로 만들 예정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5_1130

ㅇ 유럽연합은 국제 인재를 유치하고 미국 내 과학 정책 후퇴로 위협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Choose Europe 패키지의 핵심 조치는 7년 동안 지원되는 유럽연구위원회(ERC) 슈퍼 그랜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에게 장기적인 연구 안정성을 제공할 예정
- 기존 ERC 그랜트와 마찬가지로 국적에 상관없이 호라이즌 유럽 회원국의 호스트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적의 개인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5억 유로에는 슈퍼 그랜트 외에도 해외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ERC 수혜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초기 정착 지원금이 포함되며 최근 1인당 200만 유로로 두 배 증액됨
- 패키지에는 연구자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한 마리퀴리(MSCA) 파일럿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박사후연구원을 고용하는 연구기관에 2~3년간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후 2년간은 자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연구자에게 범용 기술 및 직무별 기술 개발 기회와 장기적 경력 전망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올가을 2,250만 유로 규모의 첫 번째 파일럿 콜이 개시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목표로 지원 확대 계획
- 5억 유로 예산은 2025~2027년 동안 사용되며, 2028년 이후에는 새로운 장기 예산안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할 전망

-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도 별도로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제도를 도입 중.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840만 유로 규모의 해외 연구자 유치 기금을 운영 중임. 한편 독일 새 정부는 5,000억 유로의 인프라 및 기후 예산 중 일부를 미국 과학자 유치에 사용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포르투갈 전 연구장관 헤이토르는 Choose Europe 시범 사업이 제도화되길 바라며, 향후 예산안에서 MSCA 수준(7년간 66억 유로)을 목표로 확대되길 희망함을 밝힘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ropean-research-council/eu-introduce-seven-year-erc-super-grants-lure-disaffected-us

2 프랑스,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Choose France for Science 프로그램 출범(4.24)

ㅇ **프랑스 정부는 해외 과학자와 자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Choose France for Science 프로그램을 출범**

- 특히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우주 분야의 연구자가 주요 타겟이며, 미국 과학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국적 제한은 없음

-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자의 연구 주제의 적절성이 선정 기준이며,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가 연구 예산 외 별도 자원을 투입해 채용비의 최대 50%를 부담할 것(나머지 비용은 지방 당국과 민간 부문의 도움을 받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

-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시작.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최근 국제 연구자 채용을 위해 840만 유로의 기금을 발표했고, 독일도 인프라 및 기후 패키지를 활용해 미국 과학자 유치를 논의 중임

- 그러나 프랑스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하는데, 파리 시테 대학의 Besson 강사는 프로그램의 의도는 훌륭하나 프랑스의 낮은 연구 투자 수준과 경쟁력 부족한 임금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경제학자 Askenazy는 미국의 과학 환경이 여전히 뛰어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 과학자들의 해외 이탈 조짐은 나타남. 2025년 1~3월 사이 미국발 해외 연구직 지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ㅇ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대학 자체 프로그램과 과학 비자 제도를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노력이 나타남

- 프랑스의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자체 프로그램인 'Safe Place for Science'를 통해 한 달 만에 NASA, 예일대, 스탠퍼드대 출신 포함 약 300건의 신청서를 접수
- 대학 총장 Berton에 따르면 신청자 다수는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했고, 일부는 위협적이고 충격적인 경험담을 함께 전달함
- 지원자들은 이직의 이유로 향후 자금 출처에 대한 불투명성과 연구 자유 제한이나 연구 커뮤니티의 불안을 야기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꼽음
- Berton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압력을 받는 과학자들을 위한 '과학 난민' 지위 신설을 제안. 이는 언론인이나 정치적 반대자들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프랑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됨
- Berton은 해당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는 과학자들의 지속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자하리에바 EU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이전에 '과학을 위한 특별 여권' 구상을 언급했으나, 아직 구체적 제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international-news/france-creates-platform-attract-us-and-other-disaffected-researchers

3 프랑스, 공동 연구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조치 촉구(5.5)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 연구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

-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개최된 'Choose Europe for Science' 행사 마무리 연설에서 기후변화나 공중보건 등 주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과학 데이터의 손실에 저항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

- 마크롱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의 부재가 세계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세계 과학에서 미국의 중추적 역할을 고려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접근이 불가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는 주요 연구 플랫폼과 필수 데이터베이스라고 강조

○ 마크롱 대통령은 협업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 프랑스 인공지능 정상회의에서 개방형 연구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여 민간 주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범한 'Current AI'를 사례로 듦

- 마크롱은 특정 과학 지식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중 하나는 공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수집하는 비영리 단체 Software Heritage의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

- 현재 상황은 유럽이 연구와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되찾아야 하는 계기라고 강조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international-news/macron-calls-action-protect-collaborative-research-platforms-and-databases

④ 독일, 5,000억 유로 예산 과학자 유치와 연구 투자에 활용할 계획(4.24)

○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기후 패키지 중 일부를 미국 과학자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5,000억 유로 패키지는 본래 인프라 및 기후 중립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이나, 대학 지원과 연구 프로그램 확대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최근 유럽 학술기관의 미국인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지원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1,000 heads'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과학 인재 유치를 계획

- 프랑스가 먼저 미국 학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독일도 동 프로그램으로 1,000명의 인제 유치, 비자 절차 간소화, 과학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을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논의 중

-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이 미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시설을 갖춘 연구실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독일 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 과학자 유치가 기회주의적이며 대서양 학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 독일 학술교류처와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스카우트보다는 협력 유지를 강조

○ 차기 정부 연정 협약에는 '1,000 heads' 프로그램 외에도 독일 및 유럽 과학에 대한 다수의 새로운 방침 포함

-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EU 교육, 연구, 혁신, 인공지능, 우주 등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유럽 자본시장 통합 지지, Erasmus+ 모빌리티 프로그램 강화, 범유럽 프로젝트 절차 간소화를 요구

- 국내 과학정책에서는 연구자 처우 개선, 행정 간소화, 여성 과학 리더 확대, 6대 핵심 기술(AI, 양자기술, 마이크로전자, 바이오, 핵융합, 기후중립 교통)에 집중할 계획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international-news/germany-could-spend-part-its-eu500b-stimulus-package-attracting-us-scientists

5 호라이즌 유럽, 1유로당 최대 11유로의 경제적 이득 창출(4.30)

ㅇ 호라이즌 유럽은 2045년까지 EU의 기여금 1유로당 최대 11유로의 GDP 이익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비용 1유로당 EU 시민에 최대 6유로의 이익, EU 기여금 1유로당 최대 11유로의 GDP 증가를 2045년까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영향력) 2025년 1월 기준으로 1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430억 유로 이상 지원을 받았으며, 연료전지 전기버스, 신형 항생제, 접근성 높은 인공지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됨

- (과학적 우수성) 유럽연구위원회(ERC) 지원 프로젝트의 80%가 과학적 돌파구 또는 주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1984년 설립된 이래로 3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 (혁신) 유럽혁신위원회(EIC) 펀드를 통해 혁신 기업에 투자된 1유로당 3유로 이상의 민간 투자 유치가 이뤄짐. 이는 호라이즌 유럽하에 신설된 EIC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업 지원의 판도를 바꿨음을 보여줌

- (참여) EU 회원국 간 연구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EU 내 저성과국(참여확대국가)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비율이 호라이즌 2020 대비 47%에서 58%로 증가

- (간소화)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럼섬 보조금이 행정 부담을 14~30%까지 줄여 현재까지 최대 6,300만 유로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 발생. 동 보조금은 재무 보고 요건이 없으므로 중소기업과 신규 참여자에게 특히 매력적

- 이번 중간 평가는 1,700건 이상의 공개 의견 수렴, 1,000건 이상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과 정책 개선에 나설 예정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115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호라이즌 유럽 2025 신규 파트너십(5.6)

○ **유럽연합 집행위는 2025년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초안을 공개하며, 연구혁신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파트너십을 출범할 예정**

- 파트너십의 목적은 국가별 연구혁신 노력을 조율하고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는 것임
- 일부 파트너십은 이미 출범했으며 올해 첫 번째 제안서 공모가 시작될 예정

○ **공동 프로그램 파트너십(Co-programmed partnerships)**

- 집행위는 지난 3월 EU와 대부분 민간 파트너로 구성된 3개의 새로운 공동 프로그램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했으며, 곧 가상세계를 주제로 한 네 번째 파트너십도 출범 예정

파트너십	내용	공모
유럽을 위한 혁신적인 첨단소재	• 목표: 유럽 첨단소재 경쟁력 강화 목표 • 예산: 집행위와 민간 파트너들은 2030년까지 각각 최대 2억 5,000만 유로 투자	• 건설 부문 제품 모니터링 및 스마트 유지보수/보수 전략용 첨단소재(3천만 유로) • 제조 및 최종 조립용 고강도·고속 경화 밀봉제 및 코팅 첨단소재(3천만 유로) • 저전력 및 초광대역 성능을 지원하는 광통신용 포토닉스 첨단소재(1천만 유로) • 유연하거나 신축 가능한 전자기기용 첨단소재(1천5백만 유로)
미래를 위한 섬유	• 목표: 섬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 강화 목표 • 예산: 집행위와 민간 파트너들은 향후 5년간 각각 최대 3,000만 유로 투자	• 디지털 기반 지역 맞춤형 섬유 및 의류 생산(1천만 유로)

태양광 혁신	• 목표: EU의 태양광 제조 역량 확대, 기술 혁신 주도, 공급망 자립성 확보 • 예산: 집행위와 민간 파트너들은 각각 최대 2억 4,000만 유로 투자	• 액상 또는 기상 기반 실리콘 성장 기술 최적화(1천8백만 유로)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상용화 및 전용 제조장비 개발(2천4백만 유로) • 신규 인버터 기술 및 시스템 유연성 강화(1천8백만 유로) • 결정질 실리콘 모듈 수명 연장 기술 개발(8백만 유로)
가상세계	• 목표: 전략적 연구혁신 아젠다 수립 및 Web 4.0, 개방형 가상세계 생태계 구축	• 가상 세계의 핵심 기술 개발(4천3백만 유로) • 가상 세계용 생성형 AI 기술: 성능 향상 및 개인 맞춤형 몰입형 경험 지원(2천만 유로) • Web 4.0 및 가상 세계를 위한 개방형·상호운용 가능한 기반 기술 개발(1천4백 5십만 유로)

○ 공동 자금 지원 파트너십(Co-funded partnerships)

- 클러스터별 워크프로그램에 집행위, 연구혁신 자금지원기관, 회원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4개의 새로운 공동 자금 파트너십 과제가 포함됨

파트너십	내용
뇌 건강	• 목표: 뇌 건강 증진, 신경 및 정신 질환 예방, 진단·치료·돌봄 개선을 위한 연구 정책 조정 • 예산: EU 기여 1억 5천만 유로 • 대상: EU 회원국, 준회원국, 제3국 (미국 포함)
회복력 있는 문화유산	• 목표: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이해 및 대응 • 예산: EU 기여 6천만 유로 • 대상: EU 회원국, 준회원국, 제3국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자재	• 목표: 에너지·농업 외 원자재 분야의 국가 및 지역 연구 프로그램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공모 추진 • 예산: 약 3억 유로 (EU 기여 최대 9천만 유로) • 대상: EU 회원국, 준회원국, OECD, 아프리카연합, MERCOSUR, CARIFORUM, 안데스 공동체, 원자재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림	• 목표: 산림 부문 가치 제고, 생물다양성 확보, 기후 회복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바이오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예산: EU 기여 7천만 유로 (향후 3년간, 2025년은 1천만 유로 배정) • 대상: EU 회원국, 준회원국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r-d-funding/horizon-europe/brain-health-forests-virtual-worlds-new-horizon-europe-partnerships-2025

2 기후변화 적응 미션, 가시적인 성과 달성(4.28)

ㅇ **EU의 기후변화 적응 미션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현재까지 유럽 전역 400곳 이상의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이 미션 헌장에 서명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기후 적응 전략을 실질적 조치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고 있음
- 2025년 발표된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범유럽적 협력과 혁신을 통해 범람원 복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성과 달성
- 기술 및 재정 지원도 병행됨. 145개 지역 및 당국은 MIP4Adapt(미션 실행 플랫폼)의 맞춤형 기술 지원을 받았고, 70곳 이상은 Pathways2Resilience, CLIMAAX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험 평가 및 적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유럽 전역 200곳 이상에서 녹색 인프라, 위험 예측 기술 등 최첨단 솔루션 시범 사업이 진행 중
- 실행공동체를 통해 혁신 및 교류를 추진하고, 미션이 유럽 전체의 공동 대응이 되도록 보장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향후 발표 예정인 '유럽 기후 적응 계획'은 정책과 실행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과 지역, 도시 차원에서의 적응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로 기대됨
- 동 미션은 협력, 지역 리더십, 지속적인 투자가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드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

- 제4차 기후변화 적응 포럼은 2025년 5월 20일 폴란드에서 개최 예정이며, 지역 및 EU 관계자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계획

출처	https://climate.ec.europa.eu/news-your-voice/news/three-years-eu-mission-adaptation-accelerates-europes-resilience-efforts-2025-04-28_en

3 OECD 분석,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중 세제 혜택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4.29)

○ 현재 OECD 국가에서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세제 혜택인 것으로 나타남

- 최신 OECD 분석에 따르면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약 55%는 세제 혜택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 세제 지원이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음
- 38개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4개국만이 R&D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 EU 회원국 중 포르투갈은 R&D 세제 지원이 GDP의 0.3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직접 보조금은 0.07%에 불과
- 세제 지원 비중이 비교적 높은 다른 유럽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영국, 프랑스가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은 수익성 높은 대기업에 가장 관대한 R&D 세금 혜택 제공국으로 평가됨
- 전체 EU 차원에서는 2023년 세제 혜택이 GDP의 0.08% 수준이나 국가 간 격차 큼. 에스토니아는 대부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고, 리투아니아는 거의 전적으로 세제 혜택(GDP의 0.04%)을 통해 지원
- OECD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은 2003년 GDP의 0.05%에서 2022년 0.13%로 증가. 직접 보조금은 20년간 0.1% 수준에서 거의 변화 없음
- 세제 혜택은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쟁 규칙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분야의 R&D를 타겟팅하기 어려움

-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전체 R&D 지원의 85%를 세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연구 자금 급증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여러 연구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tax-incentives-dominate-company-rd-support-oecd-countries

4 (SB펀딩레이더) 바이오제조 관련 주요 공고(5.6)

ㅇ EU는 EU 제약 전략 등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특히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바이오제조 관련 연구혁신에 상당한 투자를 해옴

- 바이오제조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해 상업적 가치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EU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부상
- 2024년 1월EU 집행위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

호라이즌 유럽 -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촉진 공모
- 개요: EU 내 기후탄력적 작물 및 식물기반 바이오제조 연구를 포함한 바이오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 공모: 2025년 7월 24일 - 2025년 10월 29일

Circular Bio-based Europe 공공민간 파트너십
- 개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고무 자원의 대체 바이오제조 경로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 공모: 2025년 9월 18일 마감
- 예산: 최대 700만 유로

세계보건기구(WHO)-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제조 교육 허브
- 개요: 고품질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 전문인력 양성(저·중소득 국가 시민이면서 관련 기업 재직자 대상)
- 공모: 2025년 6월 5일 마감

영국 EPSRC-일본 JST AI 및 데이터 과학 공동 연구 공모
- 개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경쟁력 있는 국제 협업 프로젝트 대상)
- 공모: 2025년 5월 22일
- 예산: (영국 측) 프로젝트당 최대 150만 파운드, (일본 측) 프로젝트당 최대 2억8천만 엔 (약 170만 유로)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weeks-round-biomanufacturing-calls

3. EU 연구성과

1 (성공사례) 지역 사회 프로젝트의 도시 재생 영향

○ **T-Factor 프로젝트는 문화와 창의성이 단기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개입을 통해 도시 재생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탐구**

- 프로젝트는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임시로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며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
- 프로젝트는 10개 EU 회원국, 중국, 영국의 26개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여 도시,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연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 런던 킹스크로스, 마르세유, 도르트문트 등의 기존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창의적이고 참여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런던, 빌바오, 밀라노, 암스테르담, 리스본, 카우나스 등 6개 시범 도시에 지역사회 정원 조성, 문화 행사, 예술 시설 설치 등을 진행
- 프로젝트에 2,8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고 250명 이상의 정책 입안자와 협력

○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 연구팀은 1년 이상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집중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Martelloni는 연구팀이 다양한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음을 언급
- 예를 들어 빌바오에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 임시 활용 제안을 수립
- 지식 공유를 위해 Transformation Labs(T-Labs)를 설립하여 국제적 전

문 지식을 모아 지역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

- 민간 개발업체의 협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Martelloni는 개발업체들이 공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등 지역사회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언급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문서화, 스토리텔링, 공동 자문 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의 제도적 지원 뒷받침을 강조

T-FACTOR 프로젝트
- 기간 : 2020.06.01.~2024.05.31.
- 예산 : 약 8,718,876.07 유로 (EU 7,998,425.00 유로 지원)
- 총괄 : ANCI TOSCANA ASSOCIAZIONE (이탈리아)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how-can-short-term-neighbourhood-projects-achieve-lasting-impact-urban-revitalisation

2 (성공사례) AI 기반 법률 데이터베이스, 법정에 문화적 통찰력 제공

ㅇ **CULTEXP 프로젝트는 법정에서의 문화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판례 및 전문가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문화 전문성은 가족 분쟁, 망명 신청, 소송 및 형사법 문제 등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회·법률적 맥락 지식을 의미하며, 문화적 방어가 아닌 배경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문화 전문 지식은 당사자의 문화·사회 배경에 대한 이해를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이민·망명 사건에서 EU의 관련 규정에도 명시됨
- 그러나 문화 전문성 확보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음. 프로젝트는 법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소송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

ㅇ **프로젝트는 이전 EURO-EXPER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 4,000건의 판례, 1,000건의 전문가 보고서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함**

- CULTEXTP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개발하기 위해 시작함
- CULTEXP 플랫폼은 다국어 검색 및 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판례법 식별자 표시도 지원하고, 사용자는 별도 교육 없이 무료 접근 가능함
- AI 기반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을 통해 기존 3~6개월 소요되던 전문가 보고서 작성을 단 몇 분 내에 완료 가능

ㅇ **연구팀은 또한 자동 익명화 시스템을 구축**

- CULTEXP 연구팀은 GDPR 준수를 위해 세계 최초 다국어 자동 익명화 시스템 Elydor를 개발. 이를 통해 문서의 이름, 날짜 등 식별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및 대체하여 1건당 3분 내 익명화 처리 가능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Holden은 이는 기존 하루 분량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

ㅇ 프로젝트는 전문가 보고서 제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옴

-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적 접근성을 제공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 2022년 Holden은 진행해 온 연구와 EURO-EXPERT 및 CULTEXP 캐나다 인류학자를 지원하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캐나다인류학회(CASCA) 명예 회원 자격을 수여 받음

- 연구팀은 현재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전환기금(Transition grant)을 신청 중이며, 플랫폼의 시장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 예정

CULTEXP 프로젝트
- 기간 : 2022.02.01.~2023.11.30.
- 예산 : EU 150,000.00 유로 지원
- 총괄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프랑스)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ai-powered-legal-database-brings-cultural-insights-court